



7가지 멀티미디어 기능을 만끽하라

지난 해 'PMP 열풍'으로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개념이 일반인의 머리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디지털 컨버전스하면 단연 휴대폰일 것이다. 휴대폰은 어떤 모바일 기기보다 기능이 많다. 현재 이러한 휴대폰의 인기에 편승해 휴대폰 형태로 디자인 된 MP3 플레이어와 디지털카메라가 속속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웨이키안 DV-6500은 폴더 타입 휴대폰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7가지 멀티미디어 기능을 담은 최근 경향에 충실한 제품이다.

글_박남수 PC라인 기자

웨이키안 DV-6500

웨이키안 DV-6500

21 세기형 모바일 기기를 정의하는 단어는 '통합'이다. 통합이란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은 휴대폰이다. 휴대폰은 전화 통화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동영상과 음악 감상, 게임, 사진과 영상 촬영 등 여러 기능을 갖췄다. 이렇듯 휴대폰처럼 여러 기능을 통합하는 현상은 휴대용 멀티미디어 산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과를 낳고 있다.

메인보드 산업을 예로 들면 사운드와 네트워크 기능을 통합한 보드가 발표되고, 시장에서 주류를 형성하면서 사운드카드와 랜카드 제조 산업은 쇠퇴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휴대폰에 통합되는 기능 중 하나에만 집중하는 제조사는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MP3 플레이어와 디지털카메라의 기능도 휴대폰에 통합되어 관련 업체들은 휴대폰과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디지털카메라 제조 업체들은 기술적인 우위로 휴대폰과 경쟁한다. 900만 화소에 달하는 고품질 기술과 고용량 메모리로 승부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MP3 플레이어 업체들은 이와 달리 휴대폰에 버금가는 여러 기능을 MP3 플레이어에 통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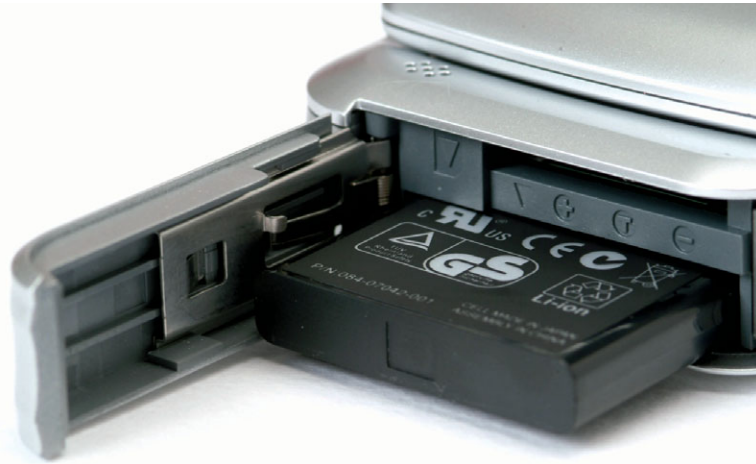
기능 늘려야 휴대폰과 경쟁할 수 있다(?)

왜 휴대폰의 통합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두 제조업체들의 대처 방식이 다를까? 디지털카메라에는 휴대폰에 담기 힘든 렌즈라는 부품이 있다. 900만 화소대의 빼어난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커다란 렌즈가 필수다. 하지만 휴대폰에 이 부품을 넣으면 이동성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실현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MP3 플레이어는 음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칩의 크기가 작아서 휴대폰에 얼마든지 집적할 수 있다. 휴대폰은 컬러링 기능을 통해 사운드 성능을 점차 높여 왔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커지는 시점에 맞춰 자연스럽게 MP3 플레이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MP3 플레이어 업체들은 휴대폰에 대응하기 위해 PMP를 비롯한 여러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3가지 기능을 갖췄을 뿐이어서 휴대폰의 매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7가지의 기능을 한 기기에 담아낸 웨이키안 DV-6500이 발표돼 MP3 플레이어 마니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웨이키안은 이 제품 이전에도 독특한 디자인의 MY-2030(MP3 플레이어)를 발표한 바 있는 전문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다.

DV-6500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보이스 리코더, 동영상 촬영과 재생, 웹카메라 등 무려 7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담아 낸 독특한 제품이다. 손때가 덜 타는 은색 도료로 도색된 외형은 세련된 멋을 풍긴다. 조금은 두꺼운 폴더 타입 휴대폰을 연상시키는 디자인도 이 제품의 느낌을 잘 살렸다.

MP3 플레이어를 휴대폰처럼 설계한 것은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디지털 컨버전스란 개념이 잘 반영된 휴대폰의 이미지를 구매자에게 어필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물론 폴더 타입 휴대폰은 커다란 LCD를 붙일 수 있는 이상적인 디자인이기도 하다. 이런 디자인에서 전문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의 잡는 느낌은 기대할 수 없지만, 많이 써왔던 휴대폰 모양이기 때문에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제품 앞면에는 8.5mm 렌즈와 셀프 카메라용 거울 역할을 하는 부분, 또 플래시가 있다.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거울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 LCD 화면을 보지 않아도 거기에 비친 모습 그대로 사진이 찍힌다.

렌즈는 단초점 렌즈로 아날로그 줌 기능이 없는 대신 디지털 방식으로 8배 줌 기능을 제공한다. 단 디지털 방식 줌이기 때문에 촬영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펼쳐진 폴더에는 2인치 회전형 LCD가 달려 있다. 렌즈를 두는 방향에 따라 가로로 된 사진이나 세로로 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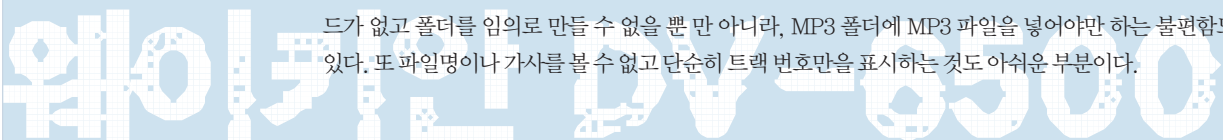
LCD 반대편에는 방향키, 줌, 셔터, 플레이/리코딩 토글, 모드 등 대부분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부가 있다. 각 버튼은 넓게 퍼지듯 배열되어 원하지 않는 버튼을 눌러 잘못 작동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편리하다. 또 버튼을 누르는 감촉도 경쾌한 편이다.

제품의 오른쪽 면에는 AV와 전원 입력 단자가 있다. AV와 이어폰 기능이 하나의 단자로 통합된 독특한 형태를 보여준다. 한 개의 단자로 음악도 감상하고, TV나 모니터와 연결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단자는 이어폰이나 AV 케이블을 꽂을 때, 둘 중 하나의 모드를 선택문에서 결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왼쪽 면에는 세로로 된 사진을 촬영할 때 쓰이는 셔터 버튼과 촬영 모드 설정 스위치가 있다. 촬영 모드는 광각과 인물, 접사로 구분된다. 접사 촬영 모드로 선택하면 최소 20cm까지 접사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쓸만한 7가지 멀티미디어 기능 통합

MP3 파일 재생 기능은 MP3 플레이어 전문 제조업체 제품답게 수준급 음질을 제공한다. 다만 음장 모드가 없고 폴더를 임의로 만들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MP3 폴더에 MP3 파일을 넣어야만 하는 불편함도 있다. 또 파일명이나 가사를 볼 수 없고 단순히 트랙 번호만을 표시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MP3 파일 재생 기능 외에도 MPEG-4 파일 타입(Xvid 코덱) 동영상을 촬영해 SD 카드에 저장할 수 있다. 아날로그 TV의 기본 해상도에 맞춰진 640×480 해상도와 30프레임/초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촬영된 동영상은 TV에서 부드럽고 깨끗하게 재생된다.

사진 촬영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디지털 줌을 이용할 수 있고, 9단계로 노출량을 조절할 수 있어 동영상을 임의로 조절할 수 편리하다. 특히 필터 효과까지 있어 일반 디지털 캠코더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 속에 담겨 있다. 단 디지털 줌 기능을 8배까지 높이면 촬영된 동영상에서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 때문에 최대 광각까지의 이용은 피해야 한다. 1GB 용량의 SD카드를 기준으로 4시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담을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살펴보면 300만 화소 CMOS CCD를 인터플레이션해 최대 600만 화소의 사진도 얻을 수 있다. 화이트 밸런스, 야경 촬영과 스포츠 노출 모드 등 여러 가지 촬영 모드도 준비됐다.

이 제품은 맑은 날씨의 야외 촬영에서 진가를 발휘해서 일반 디지털카메라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깔끔한 사진을 제공한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을 절반씩 두 번에 나눠 찍는 기능은 참신하고 재미있는 시도다.

다만 대부분의 콤팩트 단 초점 카메라가 그렇듯 광량 확보가 힘든 야간 실내에서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또 동영상 촬영 때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줌 기능은 화질 저하 현상이 현저하기 때문에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부가적인 동영상 감상과 보이스 리코딩, 웹카메라, SD카드 리더 기능도 쓸만한 성능을 보여준다. 동영상 감상 기능은 Xvid 파일 포맷 동영상만 재생되어 호환성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3.5인치 대형 LCD에 동영상을 재생하는 PMP 못지않은 뛰어난 화질을 보여준다.

디지털 컨버전스 장치는 개개의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 담아내어 여러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전문적인 전용 장치에 비해 성능과 부가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지난해까지는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웨이키안 DV-6500은 무려 7가지 부가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각각의 기본 기능에 충실한 편이다. 웨이키안이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만든 DV-6500이 휴대폰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선전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지만 웨이키안의 부가 기능은 휴대폰 못지 않고, 그 성능도 일반 휴대폰에 비해 뛰어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난 상태다.

이번 웨이키안의 시도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다면 향후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의 걸음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PMP라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달콤한 결실을 맺지 못했던 MP3 플레이어 업체들의 휴대폰에 대한 도전을 올해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